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과정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2.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명 이상 자녀에서 2명 이상의 자녀로 변경
(안 제2조제1호)
- 아이조아카드의 대구도시철도 요금할인은 3자녀 이상으로 현행 유지
(안 제13조제2항)
- 출산 장려 · 양육 · 결혼장려 지원 조문 정비 및 종료사업 등 삭제
(안 제9조, 제15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규홍)

☐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초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적법성 여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하게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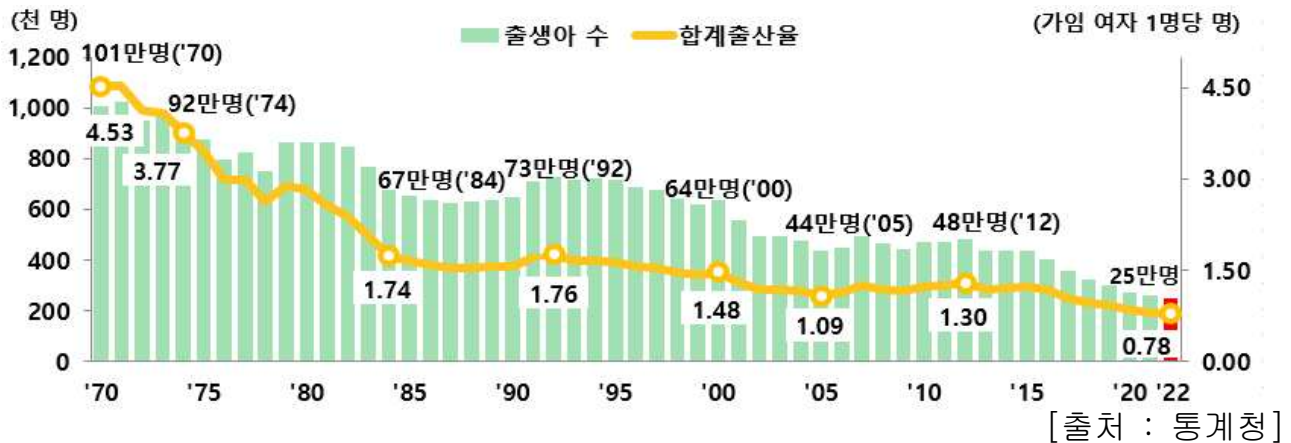
- 안 제2조제1호는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음.
- 안 제13조제2항은 아이조아카드 우대 및 할인 혜택 중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감면은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9조 및 제15조는 출산 장려·양육·결혼장려 지원 조문을 정비하고 종료사업 등을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는 6.0명이었으나 1984년에 대체출산율²⁾인 2.1명 이하로 하락하였고, 2022년에는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1천 명(-4.4%)이 감소하여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해 출생아 수 감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

[전국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2]



- 2022년 출생아 24만 9천명 중 둘째 아이 비중은 7만 6천명(30.5%)으로 지난해 대비 1만 5천명(16.7%) 감소하는 등 2자녀 가구의 급속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2012-2022]

(단위: 천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증감률
계*	484.6	436.5	435.4	438.4	406.2	357.8	326.8	302.7	272.3	260.6	249.2	-11.4	-4.4
첫째아	248.9	224.8	225.4	228.6	212.9	187.9	176.9	168.5	154.0	148.0	156.2	8.3	5.6
둘째아	184.0	165.7	165.3	166.1	152.7	133.9	119.7	108.4	95.6	91.3	76.0	-15.3	-16.7
셋째아 이상	50.6	45.2	43.7	42.4	39.6	35.0	28.2	25.7	22.6	21.2	16.9	-4.4	-20.5

* 출산 순위 미상 포함

[출처 : 통계청]

- 특히,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4위인 대구시의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음.

- 정부는 출산을 제고를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타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할 뿐 아니라 대구시의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예상되나,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출산을 제고를 위한 대구시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만큼, 단순 지원성 사업 뿐만 아니라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음.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 행정지원팀장	송정훈 803-5123	문화복지전문위원	이규홍 803-5022
----------------	-----------------	----------	-----------------

참고자료

OECD 국가 합계출산율 비교

■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및 첫째아 출산연령, 2021년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세)

국가	합계출산율	첫째아 출산연령	국가	합계출산율	첫째아 출산연령	국가	합계출산율	첫째아 출산연령
이스라엘	3.00	27.8	슬로베니아	1.64	29.0	오스트리아	1.48	29.9
체코	1.83	28.8	슬로바키아	1.63	27.3	핀란드	1.46	29.8
멕시코	1.82	-	네덜란드	1.62	30.3	캐나다	1.43	-
아이슬란드	1.82	28.6	에스토니아	1.61	28.5	그리스	1.43	31.0
프랑스	1.80	29.1	벨기에	1.60	29.5	룩셈부르크	1.38	31.3
덴마크	1.72	30.0	헝가리	1.59	28.6	리투아니아	1.36	28.3
아일랜드	1.72	31.2	독일	1.58	30.1	포르투갈	1.35	30.4
콜롬비아	1.72	-	라트비아	1.57	27.7	폴란드	1.33	28.1
튀르키예	1.70	-	노르웨이	1.55	30.0	일본	1.30	30.9
호주	1.70	29.7	칠레	1.54	-	이탈리아	1.25	31.6
스웨덴	1.67	29.8	코스타리카	1.53	-	스페인	1.19	31.6
미국	1.66	27.3	영국	1.53	-	대한민국	0.81	32.6
뉴질랜드	1.64	-	스위스	1.51	31.2	(’22년)	(0.78)	(33.0)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8*, 첫째아 출산연령 29.7**								

-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OECD 평균은 38개 회원국의 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해당 자료가 있는 30개 회원국의 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2011, 2021

